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 일시 : 2018. 8. 28. (화) 14:00~17: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중앙선거방송토론페이지



시단법인 한국정치학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 일시 : 2018. 8. 28. (화) 14:00~17: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중앙선거방송토론페이지



시단법인 한국정치학회

중앙선거방송토론팀위원회 · 한국정치학회 공동 심포지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 일시 | 2018. 8. 28. (화) 14:00~17: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중앙선거방송토론팀위원회  세단법인 한국정치학회

14:00

개 회

전체진행 **최명돈** (중앙선거방송토론팀위원회 방송토론팀장)

14:00~14:10

개 회 사 **최은수** 중앙선거방송토론팀위원회 위원장 | **김의명** 한국정치학회 회장
축 사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1주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회 분석 :

유권자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4:15~15:30

발 제 **이한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드학부 교수 |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최성민 KBS 선거방송토론피디언 기자 | **이주현** 중앙선거방송토론팀위원회 사무국장

15:30~15:40

휴식

제2주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사회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5:40~17:00

발 제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 론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진수** 서울시장선거 초청 후보자토론피디언(KBS 해설국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양규** 서울특별시선거방송토론피디언 위원회 사무국장

17:00

폐 회

Contents

제1주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회 분석 : 01

유권자 평가를 중심으로

이한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주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 39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주제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횐석： 유권자 평가를 중심으로

-
-
-

이한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앙선거방송토론판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분석: 유권자 평가를 중심으로

이한수(아주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진행된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분석한다. 특히, 이 논문은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공정성과 정보습득 평가와 시민참여에 대한 자기 평가에 초점을 둔다. 이 연구는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택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과 선거의 경쟁 수준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회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선거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택이 선거방송토론회 평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공정성이나 정보습득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의 경합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정보 습득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방송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내재적인 요인과 외재적인 요인 모두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민참여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자기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당선자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경우 선거방송토론회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쟁이 치열한 선거일수록 유권자들은 방송토론회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감소했다고 스스로 진단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주제어: 선거방송토론회,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회 평가, 시민참여, 정치커뮤니케이션, 정치행태

【 요약문 】

- 이 보고서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개최된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분석한다.
- 이 보고서의 주요 연구 질문은 “어떠한 요인들이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는가?”이다.
- 학자들은 선거방송토론이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한다(Abramowitz 1978; Benoit and Hansen 2004; Lee 2016).
- 무엇보다 방송토론 시청이 후보자 지지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가장 빈번하다(Abramowitz 1978; Holbrook 1994; Jamieson and Birdsell 1988; Lanoue 1991; Lanoue and Schrott 1989; Lee 2016).
- 후보 지지 이외에도 방송토론 시청이 정치 지식이나 선거 정보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Benoit and Hansen 2004; Lee and Lee 2015).
- 일군의 학자들은 방송토론 시청이 정치 참여나 관심과 같은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Chaffee, 1978; Lee and Lee 2017; Lemert, 1993; McKinney and Warner, 2013; McKinney, Rill, and Thorson 2014; Wald and Lupfer, 1978).
- 이 연구는 방송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 세 주제를 검토한다. 특히, 어떠한 요소들이 이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방송토론과 유권자 평가

- 선거방송토론의 공정성이나 정보습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민참여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자기 평가는 유권자들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영역을 통해 살펴본다.
 - ① 우선 방송토론 그 자체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 ⚠️ 어떠한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하였는가나 선거방송토론 시청 빈도가 방송토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하나의 예로, 선거방송토론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빈번하게 선거 방송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일수록 정보 습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두 번째로 유권자 요인이 방송토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주요 유권자 요인은 유권자들의 기존 정치 성향과 선택이다.
 - ▶ 이러한 주장은 유권자들의 행태가 자신의 선택 혹은 정치 성향 등에 따라 편향될 수 있음에 기반을 둔다.
 - ▶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택은 자신의 행태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Rudolph 2003).
- ③ 마지막으로 선거 환경 요인들이 유권자들의 방송토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주요 선거 환경 요인으로 선거의 경쟁 정도와 현직 후보의 출마를 고려한다.
 - ▶ 선거의 경쟁 정도는 유권자들의 방송토론 시청 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후보자들의 토론 전략과 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현직 후보의 출마 여부도 후보자들의 토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chroeder 2008).

연구 결과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8.6%의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회 한번이라도 시청했다고 답했다.
- 광역 단체장 선거방송토론회를 한번이라도 시청한 유권자들의 비율이 약 78%로 가장 높았다.
- 시도교육감 선거방송토론회를 시청한 비율은 약 37.3%였다.
- 시도의원 비례대표선거, 기초 자치 단체장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방송토론회를 시청한 시민들은 약 18.9% 정도였다.
- 광역 단체장 선거방송토론회만 시청한 사람들의 비율은 약 40%로 다른 선거방송 토론회만 시청한 비율에 비해 가장 높았다.
-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방송토론회만 시청한 비율은 약 3.9%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방송토론회만 시청한 비율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선거에 대한 관심과 선거방송토론회 시청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후보지지 평가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유권자들(약 59.1%)이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지지 후보에 대해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 이념 강도가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 후보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었다고 답했다.
-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 비해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공정성 및 정보 습득 평가

- 선거방송토론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한 유권자들의 비율이 약 79.5% 정도로 가장 높았던 반면, 별로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는 약 14% 정도였다.
-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할수록 선거방송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 당선자와 차순위 득표자의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의 유권자들일수록 선거방송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현직 대통령 지지와 현직 후보 출마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약 59.4%의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쟁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고 답했다. 반면, 약 41.6%의 응답자들은 선거방송토론 시청이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정치적 편향이나 선택이 정보 습득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분석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이념이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선거 경합도가 높은 지역의 유권자들일수록 정보 습득과 관련하여 선거방송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시민참여에 대한 자기 평가

- 설문 조사 결과 약 49.5%의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방송토론 시청 이전과 이후 별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한 반면, 약 44.6% 정도의 시민들은 방송토론 시청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서 살펴본 다른 평가와 달리 특정 방송토론을 시청한 사람들이 선거 관심도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 💡 교육감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한 사람들이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승자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일수록 선거 관심도 평가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 선거 경험도가 증가할수록 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 관심도 변화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 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방송토론에 대해 대화를 조금하였다는 유권자의 비율이 약 67.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약 26.4%의 시민들은 방송토론 시청 후 이에 관한 대화를 주변 사람들과 별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방송토론을 더 빈번하게 시청한 유권자들일수록 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더 빈번하게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당선자를 지지했던 유권자들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 일수록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빈번하게 선거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

- 이 연구는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 평가와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행태의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기 평가가 객관적일 수만은 없음을 보여준다.
-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가 유권자들의 평가가 늘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선거 환경과 같은 외재적 요인들 역시 유권자들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선거 환경과 같은 외재적 요인들이 유권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이나 토론 양상 때문일 가능성성이 높다.
- 이러한 추론은 후보자들이 토론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선거방송토론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발 제 문 】

서론

이 보고서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개최된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분석한다. 선거방송토론회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대통령 선거로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활용되었다. 학자들은 방송토론이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Benoit & Hansen 2004; Lee and Lee 2015). 실제로 이번 선거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39%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TV 대담이나 후보자토론회 및 방송 연설을 통해 선거 정보를 획득했다고 답하였다.¹⁾

학자들은 선거방송토론이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다 (Abramowitz 1978; Benoit and Hansen 2004; Lee 2016). 무엇보다 방송토론 시청이 후보자 지지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가장 빈번하다(Abramowitz 1978; Holbrook 1994; Jamieson and Birdsall 1988; Lanoue 1991; Lanoue and Schrott 1989; Lee 2016). 후보자 지지 이외에도 방송토론 시청이 정치 지식이나 선거 정보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Benoit and Hansen 2004; Lee and Lee 2015). 반면, 일군의 학자들은 방송토론 시청이 정치 참여나 관심과 같은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Chaffee, 1978; Lee and Lee 2017; Lemert, 1993; McKinney and Warner, 2013; McKinney, Rill, and Thorson 2014; Wald and Lupfer, 1978).²⁾ 이 연구는 방송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 세 주제를 검토한다. 특히, 어떠한 요소들이 이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한다.

선거방송토론 시청이 유권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의 전제 조건들 중 하나는 시민들의 선거방송토론 시청 유무일 것이다. 만일 극소수만이 선거방송토론회를 시청한다면, 방송토론 시청의 영향력을 탐구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 시청률은 선거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지방선거에서 방송토론회 시청률은 대통령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례로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인 4월 23일에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합은 약 38.5%였다(이소영 외 2017).³⁾ 반면, 지난 5월 30일 KBS 1TV에서 중계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방송의 서울지역 시청률은 약 8%⁴⁾, 수도권 대상 기구 시청률은 약 6%⁵⁾ 정도였다. 이는 과거 서울시장 선거 방송토론회 시청률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다.

1) 이 연구가 분석하고 있는 설문 조사 결과이다. 설문조사 관련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장 참조.

2)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방송토론회에서 관찰되는 후보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을 분석하기도 한다(e.g., 김관규 박연진 2007; 김연중 2008).

3) 지상파 3사, 종편 2사, 보도 제1 2사 등 총 7개 제1회 시청률의 합.

4) TNMS 미디어 데 이터 (<http://www.tnms.tv>).

참고로, 2014년 5월 26일 열린 서울시장 토론회의 서울지역 시청률은 약 10.1%였다.⁶⁾ 2010년 5월 17일 KBS 1TV에서 중계된 토론회 가구 시청률은 약 7.5%, 2011년 10월 10일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시청률(SBS)도 약 7.5%였다.⁷⁾ 2006년 5월 3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방송토론회의 가구시청률은 약 11.1%였다.⁸⁾ 1998년 5월 20일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 방송토론회의 시청률은 약 10.3%,⁹⁾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방송토론 시청률을 약 16.3%-20.3%였다.¹⁰⁾

비록 이번 선거에서의 선거방송토론 시청률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동시간대 다른 채널 혹은 지난 주 같은 시간대 동일 채널의 시청률과 비교하면 크게 낮거나 높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었다.¹¹⁾ 또한 지방선거의 특성상 다수의 방송토론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방송토론을 한 번이라도 시청한 유권자들의 비율은 특정 방송토론 시청률보다 높을 것이다. 실제로 이 연구가 분석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토론을 한번이라도 시청한 유권자의 비율은 약 39% 정도로 특정 선거방송토론 시청률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즉, 지방선거에서 방송토론 시청이 유권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선거방송토론 관련 제도 및 개요

방송토론에 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2조와 제82조2에 따른다. 제82조에 따르면, 언론기관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82조의2에 따르면, “시·도선거방송토론페이지는 시·도지사 및 비례 대표시·도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구·시·군선거방송토론페이지” 역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즉, 언론기관의 방송토론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선거방송토론페이지의 방송토론 실시는 의무이다.¹²⁾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페이지는 선거방송토론을 해당 선거 당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페이지는 이번 선거에서 23번의 시·도지사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페이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와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그리고

5) 널슨코리아 (<http://www.nielsenkorea.co.kr>).

6) KBS, MBC, SBS 3사 합동중계 시청률 합. 널슨코리아 (<http://www.nielsenkorea.co.kr>).

7) TNMS 미디어 데 이터 (<http://www.tnms.tv>).

8) TNMS 미디어 데 이터 (<http://www.tnms.tv>).

9) KBS, MBC, SBS 3사 합동중계 시청률 합.

10) 한겨레21. 1998. 6. 4. “제발 여기 좀 봐줘요.”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980525/1p6k5p04.html>)

11) 널슨코리아 (<http://www.nielsenkorea.co.kr>).

12) 한 예로 JTBC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방송토론은 참여 후보자 선정 문제로 인해 무산되었다.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초청대상이다. 또한 최근 4년 이내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도 초청 대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23번의 시·도지사 대담·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중 초청 외 토론은 총 6회였다(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도, 충남). 교육감 선거 방송토론회도 앞선 기준에 따라 총 21회 개최되었다(초청 외 4회: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회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방송 대담·토론을 개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총 30회의 비례대표 시·도의원 방송 대담 및 토론이 개최되었다. 이 중 5개 시도는 초청 외 토론(대담/연설 포함)이 없었다(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토론회도 각급선거방송토론회의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¹³⁾

선거방송토론 효과 연구

선거방송토론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다수의 학자들이 방송토론 효과에 초점을 둔다(e.g., Abramowitz 1978; Holbrook 1994; Lanoue 1991; Lanoue and Schrott 1989). 한국의 방송토론을 연구한 논문들도 주로 방송토론 시청이 후보자 선택이나 정치 지식의 변화와 같은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e.g., 권혁남 2011; Lee and Lee 2015; Lee 2016).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송토론 시청이 유권자들의 후보 지지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Jamieson and Birdsall 1988; Lee 2016). 하지만, 방송토론 시청 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무당파 유권자들은 방송토론 시청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eer 1988; Gordon and Miller 2004). 또한, 방송토론 시청은 기존 투표 의지를 강화시키거나 당파적인 투표 성향을 일깨우는 경향이 있었다(Lee 2016).

이 보고서 역시 방송토론이 후보자 선택이나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는 설문이 방송토론 이후 한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기 때문에 방송토론 이전과 이후의 후보자 선택이나 지지의 변화를 엄밀하게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안적으로 이 보고서는 방송토론 시청 후 후보자 지지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기 평가를 분석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연구들은 당파성이나 이념에 따라 방송토론 시청의 영향력이 달리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Geer 1988; Gordon and Miller 2004; Lee 2016). 이 보고서는 기존 연구의

13) 선거방송토론 개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debates.go.kr>) 참조

주장에 따라 이념의 강도와 당파성의 유무가 방송토론 시청에 따른 후보자 선택과 지지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한다.

선거방송토론과 관련하여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주제는 방송토론 시청과 시민참여의 관계이다(Chaffee, 1978; Lee and Lee 2017; McKinney and Warner 2013; Wald and Lupfer, 1978). 여기서 시민참여는 투표나 시위와 같은 참여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 증대, 주변 사람들과의 정치에 관한 대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선거방송토론이 선거와 정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에 관한 정보가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요소라면, 방송토론 시청은 시민참여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방송토론 시청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염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선 후보자 선택 및 지지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방송토론 시청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방송토론 시청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안적으로 이 보고서는 유권자들의 시민참여에 대한 자기 평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유권자들이 방송토론의 공정성과 정보 제공에 관한 평가를 분석한다. 이 주제는 방송토론 시청의 효과라고 보기 힘들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기존 연구에 의해 활발하게 탐구된 주제는 아니다. 무엇보다, 방송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객관적일 것이라는 가정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실제로 유권자들의 공정성 평가에는 변이가 존재한다. 정보 습득에 관해서도 유권자들 사이의 상이한 평가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어떤 유권자들은 방송토론 시청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거나, 유의미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공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유권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가? 이 연구는 어떠한 요인들이 유권자들의 방송토론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는지를 측정한다.

방송토론과 유권자 평가

이 보고서는 방송토론 시청이 유권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보다 방송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선거방송토론의 공정성이나 정보습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시민참여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자기 평가는 유권자들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¹⁴⁾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왜 나타나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영역을 통해 살펴본다.

우선 방송토론 그 자체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어떠한 방송토론을 보았는가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모두가 같은 방송토론을

14) 변이의 경험적 결과는 이어지는 장 참조.

시청했다면, 이러한 주장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는 지방선거는 선거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송토론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교육감 선거방송토론회만을 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간의 평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물론 더 세밀하게 각 광역단체 장 선거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단위, 모든 선거를 통제하여 검증하는 일은 설문 참여자의 수로 인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화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연구는 선거 단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더불어 선거방송토론 시청 빈도 역시 방송토론 평가나 유권자들의 시민참여에 대한 자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빈번하게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일수록 정보 습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을 상대적으로 더 자주 시청한 시민들일수록 주변 사람들과 더 자주 선거방송토론에 대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위해 선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선거방송토론 시청이 이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유권자 요인이 방송토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선 가능성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선거방송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지지 후보가 당선 가능성성이 낮다면, 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선 가능성성이 높은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일수록 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거나 주변 사람들과 선거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설들은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선택 혹은 정치 성향 등에 따라 편향될 수 있음에 기반을 둔다. 기존 연구들은 시민들의 정치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기존의 정치 성향 등에 따라 편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g., Evans and Andersen 2006; Evans and Pickup 2010; 이한수 2017).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택은 자신의 행태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Rudolph 2003). 예를 들어, 자신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승리한 경우 유권자들은 이 후보가 참여한 선거방송토론회가 공정하고 유용했다고 평가해야 자신들의 선택이 좀 더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자신들이 지지했던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유권자들은 방송토론회 선거에 대한 관심이나 주변인들과 대화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유권자가 당선자를 지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이러한 편향적 평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념, 정당지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업무 평가도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편향 혹은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선거관리와 선거방송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은

선거관리를 현 행정부의 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즉, 행정부 수장에 대한 지지가 선거관리에 대한 평가 혹은 지지로 이어질 수 있으며,¹⁵⁾ 방송토론의 공정성 등과 관련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 환경 요인들이 유권자들의 방송토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가 박빙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하는 까닭이나 관심도가 다를 수 있다. 박빙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방송토론을 통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청 동기는 평가에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부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대에 부응하는 방송토론을 시청하였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즉, 선거 환경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경계는 선거방송토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선거의 경쟁 정도는 후보자들의 토론 전략과 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빙의 선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좀 더 날선 토론과 네거티브 전략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략은 방송토론의 공정성이나 정보 습득, 그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scombe and Iyengar 1995).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적 요인은 현직 후보의 출마 유무이다. 현직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좀 더 손쉬운 비판 상대일 수 있다(Schroeder 2008). 즉, 현직 후보가 출마하는 선거의 경우 경쟁 후보들의 토론 전략은 좀 더 공격적일 수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진다면,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 평가는 부정적일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직 후보자가 존재하는 경우 유권자들의 평가가 달리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연구계획

이 보고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행해진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방송토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확인한다. 설문조사는 2018년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17일 동안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집단은 만19세 이상의 유권자이며, 표본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합당 추출을 통해 구성되었다. 표본의 수는 1000명이다.¹⁶⁾

15) 실제로 두 변수들(대통령 지지와 중앙선관위 감시/단속활동 평가)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강마감=0.67, 점근표준오차=0.03).

16) 95% 신뢰수준에서 +3.1% 표준오차이며, 설문수행기관은 케리시티센리서치이다.

변수와 측정

이 보고서가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종속 변수들은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에 전체 조건은 방송토론회 시청이다. 선거방송토론회 평가에 앞서 이 보고서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방송토론회를 시청하였는가를 확인한다.¹⁷⁾ 또한 시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편만 아니라 교육감, 비례대표 시·도의원, 구·시·군의장, 국회의원재보궐 선거 방송토론회의 시청 여부도 확인한다. 더 나아가 누가 방송토론회를 시청을 하였는가를 살펴본다.

방송토론회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 하나는 정치에 대한 관심¹⁸⁾일 것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청자들일수록 방송 토론회를 시청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하지만, 방송토론회를 시청함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도 있다(Lee and Lee 2017). 선거 후 한 차례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연구는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보다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선거방송토론회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주요 평가들 중 하나는 방송토론회를 시청한 후 유권자들의 후보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이다. 이 보고서는 유권자들이 방송토론회 시청 후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한다.¹⁹⁾ 더 나아가 이 연구는 후보에 대한 평가가 이념²⁰⁾과 당파성²¹⁾에 의해 달리 나타나는가를 검토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념이나 당파성의 강도가 높을수록 방송 토론회가 후보 지지를 강화할지언정, 후보 지지를 전환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6).

이 연구의 주요 주제는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평가이다. 이 보고서는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로 공정성과 정보 습득에 초점을 둔다. 우선 공정성은 “이번 후보자 TV 토론회가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²²⁾ 두 번째 평가인 정보 습득에 관해서는 “이번 후보자 TV 토론회 시청 후 새롭게 알게 된 이슈/쟁점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활용한다.²³⁾ 이 연구는 어떠한 요소가 유권자들의 공정성과 정보 습득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한다.

17) 설문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지역의 후보자 TV 토론회를 보셨습니까?”이다.

18) 설문 내용은 “선생님께서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이다. 선택항은 “1. 매우 많다. …, 4. 전혀 없다.”이다.

19) 설문은 “TV 토론회를 보신 후 후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이다. 선택항은 “1. 지지하던 후보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2. 지지후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약해졌다. 3.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4. 지지하던 후보를 바꾸게 되었다. 5.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지지하는 후보가 새로 생겼다”이다.

20) 이념은 다음의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정치아님을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구분합니다.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서 선생님께서 자신은 어디에 속하며 다음의 성당들은 0부터 10까지 눈금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0은 진보를 나타내며, 5는 중도를 나타내며, 10은 보수를 나타냅니다.”

21) 당파성은 “가깝게 느끼는 특정 정당”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22) 선택항은 “1. 매우 공정하였다. 2. 어느 정도 공정하였다. 3. 별로 공정하지 않았다. 4.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이다.

23) 선택항은 “1. 매우 많다. 2. 조금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방송토론은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Lee & Lee 2017; McKinney & Warner 2013).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방송토론 시청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방송토론의 활용 가치는 더 의미 있어질 것이다. 방송토론 시청이 선거에 대한 관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이번 후보자 TV 토론회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설문을 이용한다.²⁴⁾ 시민참여와 관련한 두 번째 변수로 이 보고서는 유권자들이 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지를 확인한다.²⁵⁾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수들 중 하나는 앞서 소개한 이념이나 당파성과 같은 기존의 정치적 성향이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후보 지지도 일종의 정치적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대통령의 업무 평가 설문을 통해 측정한다.²⁶⁾ 후보 지지는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선거방송토론을 포함하여 선거 관리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답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선거의 환경적 요인이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선거의 경쟁 정도나 현직 후보의 출마는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접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후보자들의 토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은 종국적으로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거의 경쟁 정도는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자와 차순위 득표자의 득표율 차이로 측정한다. 또한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출마한 선거인가를 이항변수로 처리한다. 물론 이번 선거는 광역 단체장 이외에도 여러 단위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유권자들(약 78%)이 시청한 방송토론은 광역 단체장 선거였기 때문에 이 선거의 경쟁 정도와 현직 광역자치 단체장 출마 여부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물론, 이어지는 장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방송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도 함께 살펴본다.

통제변수들로 이 연구는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²⁷⁾ 정치 지식 수준,²⁸⁾ 교육 수준,²⁹⁾ 재산 수준,³⁰⁾ 성별, 나이³¹⁾를 고려한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유권자들의

24) 선택항은 “1. 매우 높아졌다. 2. 조금 높아졌다. 3. 변화가 없었다. 4. 조금 낮아졌다. 5. 매우 낮아졌다.”이다.

25) 설문은 “이번 후보자 TV 토론회 시청 후 선거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이며, 선택항은 “1. 매우 자주했다. 2. 조금 했다. 3. 별로 하지 않았다. 4. 전혀 하지 않았다.”이다.

26) 설문은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이며, 선택항은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이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선택항을 역순으로 코딩하였다.

27) 정치 관심도는 “선생님께서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라는 설문을 통해 측정한다. 선택항은 “1. 매우 많다. 2. 조금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이다.

28) 정치 지식 수준은 객관적인 질문에 대한 정답 수로 측정한다. 사용된 질문들은 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총수, 국무총리 이름, 광역단체장 연임가능 횟수이다.

평가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선거에 대한 대화나 정보 획득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정치 지식 수준 역시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치 지식 수준은 정보 습득이나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Zaller 1992).

분석 결과

방송토론 시청 여부

선거방송토론회 시청은 방송토론회 시청의 영향력을 위한 전제 조건들 중 하나이다. 〈표 1-1〉에 담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8.6%의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회 한번이라도 시청했다고 답했다. 한번이라도 선거방송토론회를 시청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시청을 선거에 따라 구분해보면, 광역 단체장 선거 방송토론회를 한번이라도 시청한 유권자들의 비율이 약 78%로 가장 높았으며, 시도교육감 선거방송토론회를 시청한 비율은 약 37.3%였다. 반면, 시도의원 비례 대표선거, 기초 자치 단체장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방송토론회를 시청한 시민들은 약 18.9% 정도였다. 또한 오직 광역 단체장 선거방송토론회만 시청한 사람들의 비율 역시 약 40%로 다른 선거방송토론회만 시청한 비율에 비해 가장 높았다.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방송토론회만 시청한 비율은 약 3.9%로 국회의원재보궐 선거방송토론회만 시청한 비율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이나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선거가 무엇인가를 우회적으로 보여준다.³²⁾

〈표 1〉 선거방송토론회 시청 유무와 종류

선거방송토론회 시청 및 시청 구분	응답자 수	비율
방송토론회 시청	386	38.6
광역 단체장 선거방송토론회	301/154	77.98/39.89
시도교육감 선거방송토론회	144/52	37.31/13.47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방송토론회	75/17	19.43/4.40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방송토론회	71/15	18.39/3.88
국회의원재보궐 선거방송토론회 ³⁴⁾	76/15	19.69/3.88

29) 해당 설문은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쳤습니까?”이며, 선택항은 “1. 초등학교 졸업, … 6. 대학원 졸업(석사/박사)”이다.

30) 해당 설문은 “선생님 가구의 총재산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이며, 선택항은 “1. 5천만원 미만, …, 11. 9억원 이상”이다.

31) 나이는 만 나이로 측정한다.

32) 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유권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선거방송토론회 시청과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못하다.

33) 전체 응답자 수는 1,000명이다.

34)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은 총 12 곳으로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 서울특별시

특정 유권자들은 모든 선거에 관심을 두고 방송토론을 시청했을 수 있다. 실제로 아래의 표에 담긴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1.9%의 유권자들은 다섯 가지 선거 방송토론회를 모두 시청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선거방송토론을 전혀 시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을 제외하면, 하나의 선거방송토론만 시청했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다. 방송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때, 하나의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한 시민들의 비율은 약 58.5% 정도이다. 즉, 방송토론을 시청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다수는 방송토론을 한 번만 시청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했다는 것이다.

〈표 2〉 선거에 따른 방송토론 시청 유무

선거에 따른 시청 유무	응답자 수	비율
선거방송토론 시청 안함	614	61.4
하나의 선거방송토론 시청	226	22.6
두 개의 선거방송토론 시청	88	8.8
세 개의 선거방송토론 시청	42	4.2
네 개의 선거방송토론 시청	11	1.1
다섯 개의 선거방송토론 시청	19	1.9

앞선 두 표의 결과는 방송토론 시청유무가 유권자들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이를 설명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아래의 표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선거방송토론 시청 유무 사이의 관계를 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청 유무의 차이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한 비율이 약 23.1%이지만, 시청하지 않은 비율은 약 79.1%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방송토론을 시청한 비율은 약 60.7%이며, 시청하지 않은 비율은 약 39.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고 응답하고 매우 높다고 응답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실제로 두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³⁵⁾

충과구 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 광주광역시 서구 갑, 울산광역시 북구, 충청북도 청주시·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갑, 충청남도 천안시 병,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을.

35) 두 순위변수들 간의 연관 관계를 알아 검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감마값은 -1에서 1까지 범위를 갖는다. 0은 두 변수들 간의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변수들 간의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의 통계적 유의성은 피(= 감마값/점근표준오차) 분포를 통해 확인한다. 이 때 시청 유무는 순위 변수로 간주한다. 이 두

〈표 3〉 정치에 대한 관심과 선거방송토론 시청

시청 유무	정치에 대한 관심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시청하지 않음	80 (85.11)	373 (76.91)	148 (39.26)	13 (29.55)
시청함	14 (14.89)	112 (23.09)	229 (60.74)	31 (70.45)

이러한 연관관계는 서로 다른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한 빈도를 대상으로 할 때도 관찰된다. 아래의 표는 선거에 따른 방송토론 시청과 정치에 대한 관심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표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방송토론 시청 횟수가 줄어드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반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양상이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방송토론 시청 횟수에 따른 비율의 변이가 약 30%에서 13% 사이인 반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변이는 약 85%에서 1%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결과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방송토론을 더 빈번하게 시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두 변수들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³⁶⁾

〈표 4〉 정치에 대한 관심과 선거 종류에 따른 방송토론 시청 횟수

선거에 따른 방송토론 시청 횟수	정치에 대한 관심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선거방송토론 시청 안함	80 (85.11)	373 (76.91)	148 (39.26)	13 (29.55)
하나의 선거방송토론 시청	10 (10.64)	83 (17.11)	124 (32.89)	9 (20.45)
두 개의 선거방송토론 시청	3 (3.19)	20 (4.12)	56 (14.85)	9 (20.45)
세 개의 선거방송토론 시청	0 (0.00)	7 (1.44)	28 (7.43)	7 (15.91)
네 개의 선거방송토론 시청	0 (0.00)	1 (0.21)	10 (2.65)	0 (0.00)
다섯 개의 선거방송토론 시청	1 (1.06)	1 (0.21)	11 (2.92)	6 (13.64)

변수들 사이의 감마값은 0.64, 점근표준오차는 0.03이다.

36) 이 변수들 간의 감마값은 0.61, 점근표준오차는 0.03이다.

후보지지 평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보고서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는 방송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분석이다. 기존 연구들은 방송토론 시청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전환하기보다 강화하거나 선호를 일깨우는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e.g., Lee 2016). 이러한 주장을 염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방송토론 시청 이전의 선택과 선호를 살펴보고, 방송토론 시청 이후 선택과 선호를 조사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분석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방송토론 시청 이후에 한 차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나 선택의 변화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연구는 유권자들에게 직접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아래의 표는 관련 설문 결과를 담고 있다.

〈표 5〉 후보 지지 관련 선거방송토론 시청 효과 평가

시청 효과 평가	응답자 수	비율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 강화	73	(18.91)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 약화	56	(14.51)
변화 없음	228	(59.07)
지지 후보 변경	22	(5.70)
지지 후보 발견	7	(1.81)
계	386	(100)

이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수의 유권자들(약 59.1%)이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지지 후보에 대해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방송토론 시청 후 지지 후보를 변경했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은 약 5.7%로 지지 후보를 발견했다는 응답 비율(약 1.8%)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158명, 40.93%) 중 약 46.2%(73명)는 방송 시청 후 지지하던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약 35.44%)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방송토론 시청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염밀하게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향후 좀 더 나은 설문 설계와 조사를 통해 선거방송토론 시청이 후보자 지지나 선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이념이나 당파성과 같은 기존의 정치 성향이 새로운 정보에 의한 선호의 변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Klapper 1960). 결국,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선거방송

토론 시청이 유권자들의 후보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도 이념이나 당파성의 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념의 강도나 당파성이 선거방송토론 시청의 영향력을 어떻게 조건 짓는지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 보고서는 유권자들이 방송토론회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념의 강도와 당파성의 유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표 6〉 이념 강도와 후보 지지 관련 선거방송토론회 시청 효과 평가

시청 효과 평가	이념 강도 (%)					
	0	1	2	3	4	5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 강화	9 (11.39)	30 (29.13)	12 (15.00)	7 (11.29)	8 (28.57)	7 (21.88)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 약화	11 (13.92)	18 (17.48)	15 (18.75)	10 (16.13)	1 (3.57)	1 (3.13)
변화 없음	54 (68.35)	49 (47.57)	42 (52.50)	39 (62.90)	18 (64.29)	24 (75.00)
지지 후보 변경	5 (6.33)	5 (4.85)	7 (8.75)	4 (6.45)	1 (3.57)	0 (0.00)
지지 후보 발견	0 (0.00)	1 (0.97)	4 (5.00)	2 (3.23)	0 (0.00)	0 (0.00)
계	79 (100)	103 (100)	80 (100)	62 (100)	28 (100)	32 (100)

위의 표는 선거방송토론회 시청 효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이념의 강도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³⁷⁾ 이념의 강도가 낮은 집단(0과 1)에서 지지 후보를 변경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약 5.5% 정도이고, 지지가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15.7%, 지지를 강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약 20.26%이다. 반면, 이념 강도가 높은 집단(4와 5)에서는 같은 평가에 해당하는 비율이 평균 약 1.8%, 3.4%, 그리고 25.2% 정도이다. 즉, 이념 강도가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 후보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었다고 답했다.

〈표 7〉 당파성과 후보 지지 관련 선거방송토론회 시청 효과 평가

시청 효과 평가	당파성 (%)	
	유	무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 강화	58 (21.01)	15 (13.64)
지지 후보에 대한 지지 약화	44 (15.94)	12 (10.91)
변화 없음	152 (55.07)	76 (69.09)

37) 이념의 강도는 0에서 10까지 측정된 이념 측정치에서 중도인 5를 0으로 설정하고, 가장 강한 이념 측정치인 0과 10을 5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코딩하였다.

지지 후보 변경	15 (5.43)	7 (6.36)
지지 후보 발전	7 (2.54)	0 (0.00)
계	276 (100)	110 (100)

이러한 차이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관찰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한 후 지지하던 후보에 대해 지지를 강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3.6%, 지지하던 후보를 변경했다는 비율이 약 6.4%인 것에 비해, 당파성이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 이 비율은 약 21%와 5.4%이다. 즉,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에 비해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자기 평가는 앞서 소개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공정성 및 정보 습득 평가

이 보고서가 다루는 두 번째 유권자 평가는 방송토론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다. 비록 유권자들이 같은 방송토론을 보았다 하더라도 공정성에 관한 평가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아래의 표에 따르면, 이번 선거방송토론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한 유권자들의 비율이 약 79.5% 정도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별로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는 약 14% 정도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기 보다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토론 공정성 평가에 대한 유권자들 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표는 이 질문과 관련한 회귀 분석³⁸⁾ 결과를 담고 있다.

〈표 8〉 선거방송토론 공정성 평가

공정성 평가	응답자 수	비율
매우 공정하게 진행됨	19	4.92
어느 정도 공정하게 진행됨	307	79.53
별로 공정하지 않게 진행됨	54	13.99
전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됨	6	1.55
계	386	100

38) 이어지는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순위변수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통계 분석 모형으로 Ordered Probit을 사용한다 (Long 1997).

이 연구는 세 종류의 요인들이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 평가를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표의 첫 번째 모형은 이 요인들 중 선거방송토론 시청 자체가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다. 하지만, 이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어느 선거방송토론픈을 시청했는가는 공정성 평가의 변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⁹⁾ 또한 방송토론픈 시청 횟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즉, 유권자들이 특정 선거방송토론픈을 시청했다거나, 혹은 더 빈번하게 시청했다고 해서 방송토론픈을 더 공정하다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9〉 선거방송토론픈 공정성 평가 분석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모형 1-4
교육감토론픈 시청	-0.16 (0.19)			
비례대표토론픈 시청	0.33 (0.32)			
기초자치단체장토론픈 시청	-0.54 (0.33)			
보궐선거토론픈 시청	-0.34 (0.34)			
방송토론픈 시청 횟수	-0.01 (0.06)			
당선자 지지(광역)		0.05 (0.15)		
자유한국당 지지		-0.02 (0.23)		
더불어민주당 지지		0.11 (0.18)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47** (0.12)		0.51** (0.10)
이념		-0.01 (0.03)		
특표율 격차(광역)			0.01** (0.00)	0.008* (0.004)
현직 후보 출마(광역)			-0.04 (0.17)	
정치 관심	0.47** (0.11)	0.40** (0.11)	0.44** (0.10)	0.38** (0.11)
정치 지식	-0.02 (0.07)	-0.05 (0.07)	-0.04 (0.07)	-0.05 (0.07)
교육 수준	-0.06 (0.08)	-0.06 (0.08)	-0.03 (0.08)	-0.04 (0.08)
재산 수준	-0.12** (0.03)	-0.10** (0.03)	-0.10** (0.03)	-0.10** (0.03)
여성	0.03 (0.14)	0.01 (0.14)	0.01 (0.14)	0.00 (0.14)
나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관찰수	386	384	386	386
AIC	1.323	1.258	1.299	1.235

39) 이 연구는 특정 선거방송토론픈만 시청한 경우를 변수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이 표에서 “교육감토론픈 시청”은 교육감토론픈만을 시청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국, 각 방송토론픈시청 변수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픈 시청 대비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Pseudo R ²	0.06	0.11	0.07	0.12
Log likelihood	-241.28	-227.60	-239.76	-227.33

참조: 종속변수는 방송 토론 공정성 평가(매우 부정적 평가 = 0, ..., 매우 긍정적 평가 = 3).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Cut point 관련 정보 생략.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통계적 유의성: * < 0.10, ** < 0.05.

이 표의 두 번째 모형은 유권자 요인에 초점을 둔다. 이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이름이나 당파성, 특정 후보 지지와 같은 정치적 성향은 공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했다고 해서, 혹은 이름 때문에 선거방송토론을 공정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정치적 성향이나 선택이 편향된 평가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경험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의 변이를 설명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할수록 선거방송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일종의 정치적 편향 혹은 선택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공정성 평가에서 일종의 합리화 요인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 다른 한면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거관리를 행정부의 업무 더 넓게는 국가의 업무, 그리고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장 혹은 국가의 지도자로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지지와 선거관리 평가를 연계 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연계 역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일종의 정치적 성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모형에서 제외하면 당선자 지지나 당파성 같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이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면 여타 변수들의 영향력이 사라진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지지가 당파성이나 이름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인 정치적 성향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표의 세 번째 모형은 선거 환경 요인이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선자와 차순위 득표자의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의 유권자들일수록 선거방송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합 지역의 후보자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선거방송토론에 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반면, 선거 경쟁이 치열할수록 선호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해지고 이로 인해 선거방송토론의 진행에 대해 좀 더 편파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앞선 결과는 네 번째 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선거 경합도를 동시에 모형에 포함하더라도 두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두 변수들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상의 분석에서 득표율 격차나 당선자에 대한 지지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 토론을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포함하는 결과 해석은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회 시청한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10〉 선거방송토론회 공정성 평가 분석 (광역)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모형 2-4
광역자치단체장 토론회 시청(40)	-0.33 (0.24)			
방송토론회 시청 횟수	-0.13 (0.10)			
당선자 지지(광역)		0.10 (0.18)		
자유한국당 지지		-0.16 (0.26)		
더불어민주당 지지		0.16 (0.21)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40** (0.14)	0.54** (0.11)	
이념		-0.00 (0.04)		
득표율 격차(광역)			0.00 (0.00)	
현직 후보 출마(광역)			-0.30 (0.22)	-0.48** (0.20)
정치 관심	0.37** (0.13)	0.30** (0.13)	0.37** (0.12)	0.32** (0.13)
정치 지식	-0.07 (0.09)	-0.11 (0.09)	-0.11 (0.09)	-0.15 (0.09)
교육 수준	-0.06 (0.09)	-0.10 (0.10)	-0.07 (0.09)	-0.10 (0.10)
재산 수준	-0.13** (0.04)	-0.11** (0.04)	-0.12** (0.04)	-0.10** (0.04)
여성	0.02 (0.16)	0.03 (0.17)	0.02 (0.16)	0.03 (0.17)
나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관찰수	301	299	301	301
AIC	1.299	1.241	1.281	1.206
Pseudo R ²	0.05	0.11	0.06	0.12
Log likelihood	-184.49	-171.59	-181.73	-170.46

참조: 종속변수는 방송 토론회 공정성 평가(매우 부정적 평가 = 0, ..., 매우 긍정적 평가 = 3).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Cut point 관련 정보 생략.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통계적 유의성: * < 0.10, ** < 0.05.

이 표의 결과는 앞선 모든 선거방송토론 시청자들만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방송토론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 경합도가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반면, 현직 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유권자들이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 선거방송토론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직 후보가 출마하는 선거의 경우 도전하는 후보들이 현직 후보에 대해 공격적인 방송토론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 도전자들의 동시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방송토론이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 보고서는 유권자들이 방송토론 시청을 통해 생점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존 연구들은 유권자들의 방송토론 시청 전과 후의 정치 지식 수준 등을 비교하여 방송토론 시청이 정보 습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한다(Lee and Lee 2015). 이들의 분석 결과는 방송토론 시청이 정보 습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방송토론 시청을 통한 생점 관련 정보 습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표 11〉 선거방송토론 시청을 통한 생점에 관한 정보 습득 평가

생점 관련 정보 습득	응답자 수	비율
매우 많음	13	3.37
조금 있음	216	55.96
별로 없음	150	38.86
전혀 없음	7	1.81
계	386	100

위의 표는 선거방송토론 시청을 통한 생점 정보 습득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기 평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약 59.4%의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생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고 답했다. 반면, 약 41.6%의 응답자들은 선거방송토론 시청이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선 공정성 평가와 달리 정보 습득에 관한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선거방송토론이 공정성 중진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을 더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40) 다른 선거방송토론은 시청하지 않고 광역단체장 선거방송토론만 시청한 유권자들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어떠한 변수들이 유권자들의 정보 습득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다. 〈표 12〉은 관련 회귀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표 12〉 선거방송토론회 시청을 통한 정보 습득 평가 분석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형 3-1	모형 3-2	모형 3-3	모형 4-4
교육감토론회 시청	0.07 (0.18)			
비례대표토론회 시청	0.24 (0.30)			
기초자치단체장토론회 시청	0.12 (0.31)			
보궐선거토론회 시청	-0.46 (0.31)			
방송토론회 시청 횟수	0.00 (0.05)			
당선자 지지(광역)		0.16 (0.13)		0.24* (0.14)
자유한국당 지지		-0.37* (0.20)		-0.23 (0.21)
더불어민주당 지지		0.14 (0.16)		0.06 (0.16)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29** (0.10)		0.23** (0.11)
이념		0.08** (0.03)		0.07** (0.03)
특표을 격차(광역)			0.02** (0.00)	0.02* (0.00)
현직 후보 출마(광역)			-0.12 (0.16)	
정치 관심	0.50** (0.10)	0.45** (0.10)	0.44** (0.09)	0.40** (0.10)
정치 지식	-0.05 (0.07)	-0.10 (0.07)	-0.09 (0.07)	-0.11 (0.07)
교육 수준	0.11 (0.07)	0.08 (0.07)	0.13* (0.07)	0.12* (0.07)
재산 수준	-0.05* (0.03)	-0.03 (0.03)	-0.03 (0.03)	-0.02 (0.03)
여성	0.19 (0.12)	0.21* (0.13)	0.16 (0.13)	0.19 (0.13)
나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관찰수	386	384	386	384
AIC	1,737	1,658	1,651	1,635
Pseudo R ²	0.05	0.08	0.09	0.11
Log likelihood	-321.31	-309.44	-307.62	-298.98

참조: 종속변수는 방송 토론회 정보 습득 평가(매우 부정적 평가 = 0, ..., 매우 긍정적 평가 = 3).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Cut point 관련 정보 생략.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통계적 유의성: * < 0.10, ** < 0.05.

이 표의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정치적 면향이나 선택이 정보 습득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모형과 네 번째 모형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이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일수록,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평가하는 시민들일수록 선거방송토론회 시청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지지가 방송토론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선 공정성 평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념의 영향력은 공정성 평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번째 모형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일수록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였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납득할만하다. 반면,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평한 사람들일수록 선거방송토론을 통한 정보 습득을 긍정적이라 평가한 사실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 선거 이전부터 전보 진영의 후보들이 우세한 선거 상황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항할 논리와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대항 논리나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좀 더 종합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모형에서 자유한국당 지지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잃은 반면, 당선자 지지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즉, 지난 선거에서 승자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일수록 선거방송토론 시청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의 기존 성향이나 선택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주장인 선거 환경이 방송토론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관찰된다. 이 표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선거 경합도가 높은 지역의 유권자들일수록 정보 습득과 관련하여 선거방송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앞선 공정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좀 더 공격적이거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또한 좀 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더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거방송토론이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방송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아래의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13〉 선거방송토론 시청을 통한 정보 습득 평가 분석 (광역)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형 4-1	모형 4-2	모형 4-3	모형 4-4
광역자치단체장토론 시청	-0.18 (0.21)			
방송토론 시청 횟수	-0.06 (0.09)			
당선자 지지(광역)		0.02 (0.16)		0.07 (0.16)
자유한국당 지지		-0.58** (0.23)		-0.41* (0.24)
더불어민주당 지지		0.17 (0.18)		0.10 (0.18)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35** (0.12)		0.31** (0.12)
이념		0.10** (0.03)		0.09** (0.03)

득표율 격차(광역)		0.01** (0.00)	0.01* (0.00)
현직 후보 출마(광역)		-0.32* (0.19)	-0.29 (0.20)
정치 관심	0.46** (0.11)	0.46** (0.11)	0.45** (0.11)
정치 지식	-0.05 (0.08)	-0.11 (0.08)	-0.10 (0.08)
교육 수준	0.13 (0.08)	0.10 (0.08)	0.14* (0.08)
재산 수준	-0.04 (0.03)	-0.02 (0.03)	-0.03 (0.03)
여성	0.15 (0.14)	0.20 (0.14)	0.14 (0.14)
나이	0.00 (0.00)	0.01 (0.00)	0.01 (0.00)
관찰수	301	299	301
AIC	1.820	1.748	1.736
Pseudo R ²	0.04	0.09	0.08
Log likelihood	-262.83	-247.26	-250.28
			-240.12

참조: 종속변수는 방송 토론 정보 습득 평가(매우 부정적 평가 = 0, ..., 매우 긍정적 평가 = 3).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Cut point 관련 정보 생략.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통계적 유의성: * < 0.10, ** < 0.05.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픈을 시청한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자유한국당 지지, 현직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이념, 득표율 격차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보 습득 평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 번째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현직 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픈 시청을 통한 정보 습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변수는 네 번째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는다.

시민참여에 대한 자기 평가

일군의 학자들은 방송토론픈 시청이 시민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Chaffee, 1978; Lee and Lee 2017; McKinney and Warner 2013; Wald and Lupfer, 1978). 이 연구는 선거방송토론픈 시청 후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빈도 변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선거방송토론픈 시청에 따라 시민참여에 대한 평가가 달리 나타나는가를 살펴본다.

〈표 14〉 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 관심도 변화 평가

선거 관심도 변화	응답자 수	비율
매우 높아짐	7	1.81
조금 높아짐	165	42.75
변화가 없음	191	49.48
조금 낮아짐	21	5.44
매우 낮아짐	2	0.52

위의 표는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변하였는가에 대한 유권자의 자기 평가에 관한 설문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약 49.5%의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방송토론 시청 이전과 이후 별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약 44.6% 정도의 시민들은 방송토론 시청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관심도가 낮아졌다는 유권자의 비율은 약 6%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렇다면, 누가 선거방송토론 시청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가?

〈표 15〉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 관심도 변화 평가 분석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형 5-1	모형 5-2	모형 5-3	모형 5-4
교육감토론 시청	-0.50** (0.17)			-0.55** (0.17)
비례대표토론 시청	0.12 (0.29)			
기초자치단체장토론 시청	-0.02 (0.30)			
보궐선거토론 시청	-0.38 (0.30)			
방송토론 시청 횟수	-0.07 (0.05)			
당선자 지지(광역)		0.37** (0.13)		0.52** (0.13)
자유한국당 지지		-0.00 (0.20)		
더불어민주당 지지		0.25* (0.15)		0.18 (0.13)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12 (0.10)		
이념		-0.01 (0.03)		

득표율 격차(광역)		0.02** (0.00)	0.02** (0.00)
현직 후보 출마(광역)		0.18 (0.15)	
정치 관심	0.47** (0.09)	0.33** (0.10)	0.37** (0.09)
정치 지식	-0.03 (0.06)	-0.06 (0.06)	-0.04 (0.06)
교육 수준	-0.04 (0.07)	-0.06 (0.07)	-0.01 (0.07)
재산 수준	0.00 (0.03)	0.01 (0.03)	0.02 (0.03)
여성	0.02 (0.12)	0.02 (0.12)	0.01 (0.12)
나이	-0.00 (0.00)	-0.00 (0.00)	0.00 (0.00)
관찰수	386	384	386
AIC	1,928	1,874	1,855
Pseudo R ²	0.04	0.06	0.07
Log likelihood	-357.19	-344.87	-346.07
			-330.94

참조: 종속변수는 방송 토론 시청 후 선거 관심도 변화(매우 낮아졌다 = 0, ..., 매우 높아졌다 = 4).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Cut point 관련 정보 생략.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통계적 유의성: * < 0.10, ** < 0.05.

앞서 살펴본 다른 평가와 달리 선거 관심도 변화에 대한 평가에서는 특정 방송 토론을 시청한 사람들이 선거 관심도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위의 표 첫 번째 모형의 결과는 교육감 선거방송토론회 시청한 사람들이 선거방송토론회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향력은 두 번째 모형에서도 관찰된다. 이러한 사실은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를 상대적으로 덜 관심 있게 지켜보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당파성을 공식적으로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하여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손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방송토론회에서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을 덜 흥미롭게 시청했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방송토론회만 시청한 유권자들은 다른 유권자들에 비해 방송토론회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 요인을 검토하는 이 표의 두 번째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당선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일수록 선거 관심도 평가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선거에서 승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도 선거방송토론회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의 기존 성향이나 선택이 선거방송토론회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 변수는 좀 더 종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도 선거 관심도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모형 결과에 따르면, 선거 경험도가 증가할수록 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 관심도 변화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치열한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보편적인 추론과 배치된다(Gey 2006). 이는 이 보고서가 분석하는 설문이 '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물었기 때문일 수 있다. 유권자들이 이 설문의 두 가지 요소, 즉 "방송토론 시청 후"와 "선거에 대한 관심 변화"에 반응한다면, 단순히 선거에 대한 관심 변화에 대한 질문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특히, 이 분석은 선거에 대한 관심을 이미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고 있다.

결국 유권자들이 경합이 치열했던 선거에서 방송토론을 시청한 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치열한 선거에서 방송토론이 진행되는 양상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쟁이 치열한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좀 더 공격적이고 네거티브 중심의 방송토론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방송토론 시청 후 관심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연구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줄여들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Anscombehere and Iyengar 1995). 이러한 결과들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표 16〉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 관심도 변화 평가 분석 (광역)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형 6-1	모형 6-2	모형 6-3	모형 6-4
광역자치단체장토론 시청	-0.19 (0.21)			
방송토론 시청 횟수	-0.13 (0.09)			
당선자 지지(광역)		0.37** (0.16)		0.51** (0.15)
자유한국당 지지		-0.11 (0.23)		
더불어민주당 지지		0.26 (0.18)		0.29* (0.15)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13 (0.12)		
이념		-0.02 (0.03)		
득표율 격차(광역)			0.02** (0.00)	0.02** (0.00)
현직 후보 출마(광역)			0.05 (0.18)	

정치 관심	0.37** (0.11)	0.24** (0.11)	0.33** (0.10)	0.22** (0.11)
정치 지식	-0.13* (0.07)	-0.18** (0.08)	-0.15* (0.08)	-0.19** (0.08)
교육 수준	0.03 (0.08)	0.00 (0.08)	0.05 (0.08)	0.01 (0.08)
재산 수준	0.00 (0.03)	0.01 (0.03)	0.01 (0.03)	0.01 (0.03)
여성	0.01 (0.14)	-0.01 (0.14)	-0.00 (0.14)	-0.02 (0.14)
나이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관찰수	301	299	301	301
AIC	1,908	1,820	1,833	1,766
Pseudo R ²	0.03	0.08	0.07	0.10
Log likelihood	-275.13	-257.15	-263.92	-252.84

참조: 종속변수는 방송 토론 시청 후 선거 관심도 변화(매우 낮아졌다 = 0, ..., 매우 높아졌다 = 4).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Cut point 관련 정보 생략.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통계적 유의성: * < 0.10, ** < 0.05.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방송토론 시청 후 유권자들의 선거 관심도 변화 평가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평가를 관찰한다. 아래의 표는 관련 설문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방송토론에 대해 대화를 조금하였다는 유권자의 비율이 약 67.4%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약 26.4%의 시민들은 방송토론 시청 후 이에 관한 대화를 주변 사람들과 별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결과 역시 방송토론 시청이 시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떤 유권자들이 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더 빈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평가하는가?

〈표 17〉 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평가

대화 횟수	응답자 수	비율
매주 자주 할	21	5.44
조금 할	260	67.36
별로 하지 않음	102	26.42
전혀 하지 않음	3	0.78

아래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느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하였는가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 첫 번째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보궐선거 방송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를 일수로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선거에 대해 덜 빈번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는 네 번째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에 대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평가 분석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형 7-1	모형 7-2	모형 7-3	모형 7-4
교육감토론 시청	0.20 (0.19)			
비례대표토론 시청	-0.22 (0.31)			
기초자치단체장토론 시청	-0.34 (0.32)			
보궐선거토론회 시청	-0.62** (0.31)			-0.53 (0.32)
방송토론회 시청 횟수	0.16** (0.06)			0.19** (0.06)
당선자 지지(광역)		0.47** (0.14)		0.52** (0.14)
자유한국당 지지		0.45** (0.21)		0.36* (0.20)
더불어민주당 지지		-0.06 (0.16)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29** (0.11)		0.26** (0.11)
이념		-0.02 (0.03)		
득표율 격차(광역)			0.01** (0.00)	0.01** (0.00)
현직 후보 출마(광역)			0.29* (0.16)	0.18 (0.17)
정치 관심	0.62** (0.10)	0.54** (0.10)	0.64** (0.10)	0.46** (0.11)
정치 지식	-0.05 (0.07)	-0.04 (0.07)	-0.00 (0.07)	-0.05 (0.07)
교육 수준	0.02 (0.07)	0.03 (0.07)	0.05 (0.07)	0.04 (0.07)
재산 수준	-0.03 (0.03)	-0.02 (0.03)	-0.03 (0.03)	-0.02 (0.03)
여성	0.07 (0.13)	0.07 (0.13)	0.05 (0.13)	0.05 (0.13)
나이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0)
관찰수	386	384	386	386
AIC	1,524	1,494	1,529	1,468
Pseudo R ²	0.10	0.11	0.09	0.14

	Log likelihood	-280.17	-272.93	-284.11	-267.29
--	----------------	---------	---------	---------	---------

참조: 종속변수는 방송 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빈도(전혀 하지 않았다 = 0, ..., 매우 자주 했다 = 3).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Cut point 관련 정보 생략.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통계적 유의성: * < 0.10, ** < 0.05.

반면, 방송토론을 얼마나 빈번하게 시청하였는가는 첫 번째와 네 번째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 변수를 설명한다. 즉, 방송토론을 더 빈번하게 시청한 유권자들일수록 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더 빈번하게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토론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선거에 대한 대화가 일정 수준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더 빈번한 방송토론 시청은 유권자들이 주변 사람들과 선거에 대한 대화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선 다른 평가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 대한 평가 역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택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의 결과에 따르면, 당선자를 지지했던 유권자들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일수록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빈번하게 선거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아래의 결과와는 사뭇 다르다. 아래의 표에 따르면, 승자 지지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변수들은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에 대한 주변인과의 대화 분석 (광역)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모형 8-1	모형 8-2	모형 8-3	모형 8-4
광역자치단체장토론 시청	0.27 (0.22)			
방송토론 시청 횟수	0.23** (0.10)		0.18** (0.06)	
당선자 지지(광역)		0.47** (0.16)	0.46** (0.16)	
자유한국당 지지		0.37 (0.24)		
더불어민주당 지지		-0.05 (0.19)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33** (0.12)	0.26** (0.11)	
이념		-0.01 (0.03)		
득표율 격차(광역)			0.00 (0.00)	
현직 후보 출마(광역)			0.19 (0.19)	

정치 관심	0.62** (0.11)	0.53** (0.12)	0.66** (0.11)	0.50** (0.12)
정치 지식	-0.11 (0.08)	-0.12 (0.08)	-0.08 (0.08)	-0.14* (0.08)
교육 수준	0.05 (0.08)	0.04 (0.09)	0.07 (0.09)	0.03 (0.09)
재산 수준	-0.02 (0.03)	-0.02 (0.03)	-0.03 (0.03)	-0.01 (0.03)
여성	0.11 (0.15)	0.10 (0.15)	0.09 (0.15)	0.10 (0.15)
나이	0.01* (0.00)	0.01* (0.00)	0.01** (0.00)	0.01** (0.00)
관찰수	301	299	301	301
AIC	1.591	1.554	1.605	1.531
Pseudo R ²	0.10	0.12	0.09	0.14
Log likelihood	-228.49	-218.28	-230.61	-218.44

참조: 종속변수는 방송 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빈도(전혀 하지 않았다 = 0, ..., 매우 자주 했다 = 3). 표 안의 숫자는 회귀계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 오차. Cut point 관련 정보 생략.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통계적 유의성: * < 0.10, ** < 0.05.

득표율 격차 변수도 두 결과를 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 방송토론을 시청한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득표율 격차가 증가할수록, 즉 경합도가 감소할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평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한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유의미한 영향력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경합도와 현직 후보의 출마와 같은 환경적인 변수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 관한 평가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거방송토론 횟수와 승자 지지, 대통령 평가 등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평가를 설명하는 상대적으로 인정적인 변수들이다.

결론

이 보고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분석한다. 선거방송토론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Schroeder 2008). 선거에 관한 정보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선거방송토론 시청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정보는 선호나 선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선거방송토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시행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특히,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둔다. 이 연구는 유권자들의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 자체가 갖는 영향력과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택이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선거의 경합 정도나 현직 후보의 출마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한다.

우선,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평가로 이 보고서는 공정성과 정보습득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공정성 평가에 안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일수록 선거방송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선거 환경 요인인 선거 경합도와 현직 광역단체장 후보의 출마도 유권자들의 공정성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습득 평가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파성과 이념과 같은 기존의 정치 성향도 정보 습득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당선자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공정성이나 정보 습득 평가에 있어 여타 시민들과 일관되게 다른 양태를 보이지는 않았다.

공정성과 정보 습득 평가와 더불어 이 보고서는 시민참여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자기 평가를 분석한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일수록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선거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의 유권자들일수록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의 자기 평가 역시 기존의 선택에 따라 편향될 수 있으며, 선거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두 번째 종속변수는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빈번하게 선거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가에 관한 자기 평가이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선거방송토론을 더 빈번하게 시청할수록 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더 빈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당선자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나 현직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시민들도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인들과 빈번하게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들의 자기 평가 역시 기존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택에 따라 편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 평가와 선거방송토론 시청 후 행태의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자기 평가가 객관적일 수만은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가 유권자들의 평가가 늘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선거 환경과 같은 외재적 요인들 역시 유권자들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거 환경과 같은 외재적 요인들이 유권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이나 토론 양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은 후보자들이 토론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선거방송토론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권혁남(2011). “2010 지방선거에서 미디어 이용과 TV토론회 관심사 청이 정치효능감, 투표행위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국언론학보』 55(6): 126-151.
- 김관규, 박연진(2007). “TV토론회에서의 후보 지지도와 토론회 포맷에 따른 설득 전략의 차이.” 『한국방송학보』 21(3): 47-87.
- 김연종(2008). “17대 대선 합동선거방송토론회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효과.”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9: 167-206.
- 이소영·강우진·김형천·박영득·이한수(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 한국정치학회: 2017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 이한수. 2017. “유권자의 정치성향과 경제인식.” 『한국정치학회보』 51(5): 29-54.
- Abramowitz, Alan I. (1978). “The Impact of a Presidential Debate on Voter Rational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3): 680-690.
- Anscombe, Stephen, and Iyengar, Shanto(1995). *Going Negative: How Political Advertisements Shrink and Polarize the Electorate*. New York: Free Press
- Benoit, William L., and Glenn J. Hansen(2004). “Presidential Debate Watching, Issue Knowledge, Character Evaluation, and Vote Choi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0(1): 121-144.
- Chaffee, Steven H(1978). “Presidential Debates: Are They Helpful to Voters?” *Communication Monographs* 45(4): 330-346.
- Evans, Geoffrey, and Mark Pickup(2010). “Reversing the Causal Arrow: The Political Conditioning of Economic Perceptions in the 2000 - 2004 U.S. Presidential Election Cycle.” *Journal of Politics* 72(4): 1236-1251.
- Evans, Geoffrey, and Robert Andersen(2006). “The Political Conditioning of Economic Perceptions.” *Journal of Politics* 68(1): 194-207.
- Geer, John G.(1988). “The Effects of Presidential Debates on the Electorate’s Preferences for Candidat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16(4): 486-501.

- Gordon, Ann, and Jerry L. Miller(2004). "Values and Persuasion during the First Bush-Gore Presidential Debate." *Political Communication* 21(1): 71-92.
- Holbrook, Thomas M.(1994). "The Behavioral Consequences of Vice-Presidential Debates: Does the Undercard Have Any Punch?"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2(4): 469-482.
- Jamieson, Kathleen Hall, and David S. Birdsall(1988). *Presidential Debates: The Challenge of Creating an Informed Elector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lapper, Joseph T.(1960).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Glencoe, IL: Free Press.
- Lanoue, David J. 1991. "Debates That Mattered: Voters' Reaction to the 1984 Canadian Leadership Debate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1): 51-65.
- Lanoue, David J., and Peter R. Schrott(1989). "The Effects of Primary Season Debates on Public Opinion." *Political Behavior* 11(3): 289-306.
- Lee, Han Soo, and Jae Mook Lee(2015).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Learning in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Does Political Knowledge Condition Information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 1-20.
- Lee, Han Soo, and Jae Mook Lee(2017). "Viewing Presidential Televised Debates and Civic Engagement in Korea."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20(4): 334-348.
- Lee, Han Soo(2016). "TV Debates and Vote Choice in the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Does Viewing TV Debates Activate Partisan Voting?" *Korea Observer* 47(2): 199-226.
- Lemert, J. B.(1993). "Do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Help Inform Voter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37(1): 83-94.
- Long, Scott J.(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London: Sage.
- McKinney, Mitchell S., and Benjamin R. Warner(2013). "Do Presidential Debates Matter? Examining a Decade of Campaign Debate Effects." *Argumentation and Advocacy* 49(Spring): 238-258.
- McKinney, Mitchell S., Leslie A. Rill, and Esther Thorson(2014). "Civic Engagement through Presidential Debates: Young Citizen's Political Attitudes in the 2012 Elec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8(6): 755 - 775.
- Schroeder, Alan(2008). *Presidential Debates: Fifty Years of High-Risk TV*.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ld, Kenneth D., and Michael B. Lupfer(1978). "The Presidential Debate as a Civics Lesson." *Public Opinion Quarterly* 42(3): 342-353.

주제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
-

발 표 자 이소영 (대구대학교)

공동연구 이재묵 (한국국어대학교)

이한수 (아주대학교)

한정택 (연세대학교)



중앙선거방송토론페이지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I. 서론

- 본 연구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및 경기도지사 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선거 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2017년 제19대 대선의 후보자토론회 효과와 비교 분석한다.
- 후보자토론회는 제3자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정보를 유권자가 직접 획득하여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작용한다. 후보자의 공약 뿐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 태도, 의견 등 다양한 측면을 유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겠다.
- 지난 제19대 대선의 후보자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선거 정보의 소스(source)로 작용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보자 검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만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후보자토론회가 중요한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평가된다.
-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유익성, 공정성 등에 대해 유권자들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며, 선거에 대한 관심도나 정책에 대한 인지,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 비교 등에 있어 후보자토론회가 상당한 정도의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017년 대선에서는 다양한 토론회 방식이 시도되어 토론회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시청자들의 흥미를 제고하는 데에도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반면, 대선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결과는 또한 후보자토론회가 개선되어야 할 요인들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토론회의 형식, 진행방식, 토론회 횟수 및 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는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논쟁적 이슈였으며, 유권자 인식 조사 결과도 이를 영역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면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토론회는 얼마나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유권자의 관심과 신뢰를 얼마나 얻고 있고, 유권자들의 정치행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 지방선거의 후보자토론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 비해 지방선거는 정보의 소스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론회에 노출된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토론회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특히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유권자나 후보자 결정을 망설이는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토론회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므로 후보자토론회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디자인될 필요가 있으며,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는 대통령선거에 비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 이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및 인식, 그리고 그 실제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후보자토론회의 질을 높여 가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자신의 필요에 부합하는 투표선택을 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그 요구들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 선거참여도 및 후보자 선택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와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본 연구는 분석의 대상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토론회에 국한하며, 이 분석 결과를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그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1.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

-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가 시작된 이래 다양한 후보자토론회 형식이 채택되어 활용되었다.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은 무엇보다도 토론회의 역동성과 흥미성을 제고하여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깊이 있는 내용과 질로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체를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간 다양한 실험을 계속해 왔고, 그 결과 토론회의 질적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다.
- 하지만 아직은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거나, 특정 후보에게 발언이 집중된다거나, 후보자 간 중복질문이 지속된다거나, 유권자 참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정체토론이 부족하고 상호비방이 난무하다는 등 많은 개선점들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기존 연구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상위 후보자 위주의 토론을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주요 정당 후보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기존 분석들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한 유권자 의견은 해당 선거 시기의 선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사회자 역할은 토론페이지보다는 단순진행역할에 그치는 소극적 역할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한국의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사회자의 중립성 문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정성을 의식한 기계적인 진행 방식으로 인하여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정체토론과 자질 검증이 부족하고 흥미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시청의 접근성이 좋은 시간대에 방영될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토론회 횟수도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비해 훨씬 많고 방송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접근성이 높은 시간에 편성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해서조차도 유권자들은 그 횟수가 더 많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존 연구들은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후보자토론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토론 횟수의 증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황금시간대(오후 8시~11시)에 방영되는 대선 후보자 토론회와는 달리, 방송편성권이 중계주관방송사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주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 인식

-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 최근 몇 차례 선거 시기 조사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 토론회나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몇몇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그에 비례하여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광역의원이나 기초단위 선거 또는 교육감선거 수준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 관심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은 없다.

-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 유권자들은 최근의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획득과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기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은 없어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토론회보다는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자토론회가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토론회보다 더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흥미성은 토론의 생동감 및 역동성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토론회의 진행이 공정성을 의식하여 기계적으로 진행될 때 흥미성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3.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 **심리·인지적 효과:** 기존 연구들은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 왔다. 특히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사람들은 시청 이후 추가 정보를 찾기 위해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습득 효과에 바탕하여 후보자토론회는 또한 시청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참여 효과:** 기존 연구들은 또한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참여 효과가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선거에 대한 대화를 더 빈번히 하게 되고 이것이 정책관련 지식과 투표 의향 및 후보 지지의견 표명 등 참여 행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태도 및 선택에 미치는 효과:** 기존의 연구들은 후보자토론회의 영향은 기존 태도와 지지후보에 대한 강화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2017년 대선에서도 기존 후보지지를 유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70%에 달했고 그 중 기존 지지후보에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8%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19대 대선은 후보자토론회 시청의 효과가 기존 지지 후보의 강화 효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지후보 변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내용

- 본 연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그리고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의 범위

제도적 측면	후보자토론회의 시간, 횟수, 진행방식, 사회자 역할, 유권자 접근성 및 참여
유권자 인식적 측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 후보자 토론회의 필요성, 흥미성, 유용성, 공정성
효과적 측면	심리·인지효과: 선거관심, 정치지식, 정치적 효능감, 정체인지, 후보자인지 태도효과: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및 비호감도 참여효과: 투표참여 선택효과: 후보자선택

- 제도적 측면에서는 후보자토론회 시간, 횟수, 진행방식, 사회자 역할,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 접근성 또는 노출, 유권자 참여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지방선거의 후보자토론회가 어떠한 제도적 장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한다.
- 유권자 인식 측면에서는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평가를 조사·분석한다.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 정도를 비롯하여 유권자들의 관심도 및 흥미도, 유용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유권자들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긍·부정적 인식은 후보자토론회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 효과적 측면에서는 토론회의 효과를 심리·인지적 효과, 태도효과, 참여효과, 선택효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선택 뿐 아니라 선거에 대한 관심, 지식, 정치적 효능감, 정체에 대한 인지, 후보자에 대한 인지,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및 투표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후보자토론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방식을 살펴본다.

- 이 세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이를 제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와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조사 방법

- 본 연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의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후보자토론회 전후에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의향자 2,225명(서울 1,120명, 경기 1,105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 60.6%인 1,116명(서울 584명, 경기 532명)이 사후조사에 응답하였다.
- 사전조사의 표본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마크로밀 엠브레인 패널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사후조사에서는 사전조사에 응답한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은 토론회 시청에 동의한 유권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평균 유권자들에 비해 정치적인 관심이나 흥미, 정체인지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모집단인 전체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에서도 예상된다.

〈표 2〉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조사설계

조사설계	
사전조사	
조사대상	서울/경기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의향자 (마크로밀 엠브레인 인터넷 패널 대상)
표본수	서울: 1,120명 경기: 1,105명
응답률	46.1% (매일 발송 수 20,438 : 최종 응답 수 2,225)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후 마크로밀 엠브레인 패널에서 무작위 추출
조사기간	2018년 5월 24~28일
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

사후조사	
조사대상	서울/경기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로 사전조사에 참여한 2,225명
표본수	서울: 584명 경기: 532명
응답률	60.6% (매일 발송 수 2,225; 최종 응답 수 1,116)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사전조사 참여자 전수
조사기간	2018년 6월 14~20일
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

- *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온라인 패널 약 130만 명(2018년 6월 기준 1,299,166명) 중 약 58%(서울과 경기 각각 29%)에 해당하는 약 75만 명 중에서 무작위 추출함. 본 온라인 패널은 남성 42.2%, 여성 57.8%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5.8%, 20~29세 35.2%, 30~39세 30.2%, 40~49세 18.7%, 50세 이상 10%로 이루어져 있다. 패널은 자발적 참여 및 out-bound 형태로 모집되며, 패널 전원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 패널로 구성된다.

3.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사후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 특성

		서울 (전체 584명)		경기 (전체 532명)	
		사례수	%	사례수	%
성별	남성	315	53.9	291	54.7
	여성	269	46.1	241	45.3
연령별	19~29세	119	20.4	101	19.0
	30대	119	20.4	111	20.9
	40대	144	24.7	133	25.0
	50대	122	20.9	125	23.5
	60대 이상	80	13.7	62	11.7
후보자토론회 시청 횟수	1회	364	62.3	356	66.9
	2회	220	37.7	176	33.1
선거방송토론회 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시청 여부	시청 안함	199	34.1	187	35.2
	위원회 주관 토론회만	158	27.1	157	29.5

	둘 다 시청	220	37.7	176	33.1
	모름	7	1.2	12	2.3
선거기간 정보 습득 매체	TV	268	45.9	223	41.9
	신문	27	4.6	20	3.8
	팟캐스트	1	0.2	1	0.2
	인터넷포털이나 블로그	205	35.1	211	40.0
	SNS	41	7.0	31	5.8
	선거홍보물	41	7.0	43	8.1
	기타	1	0.2	3	0.6
투표 후보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366	62.7	338	63.5
	자유한국당	46	7.9	114	21.4
	바른미래당	85	14.6	22	4.1
	정의당	13	2.2	16	3.0
	기타	12	2.1	1	0.2
	모름/무응답	62	10.6	41	7.7
이념 성향별	진보(0~4)	245	42.0	232	43.6
	중도(5)	177	30.3	161	30.3
	보수(6~10)	161	27.6	136	25.6
	모름	1	0.2	3	0.6
		서울 (전체 584명)		경기 (전체 532명)	
		사례수	%	사례수	%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3	0.5	2	0.4
	고교 졸업	92	15.8	104	19.6
	대학교 졸업	414	70.9	370	69.6
	대학원 이상	75	12.8	56	10.5
고용직 중 현재 고용 상태	정규직	321	85.2	287	84.2
	비정규직	56	14.8	54	15.8
직업별	사무직	240	41.1	201	37.8
	자영업	45	7.7	33	6.2
	판매/서비스	22	3.8	21	4.0
	기능/숙련직	11	1.9	6	1.1
	생산/노무직	8	1.4	15	2.8
	경영/관리직	45	7.7	43	8.1
	전문직	51	8.7	55	10.3
	농/임/어업	0	0	1	0.2
	학생	46	7.9	40	7.5

	주부	79	13.5	82	15.4
	무직	18	3.1	19	3.6
	기타	19	3.3	16	3.0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 이하	36	6.2	43	8.0
	201~300만원	67	11.5	63	11.8
	301~400만원	100	17.1	84	15.8
	401~500만원	103	17.6	112	21.1
	501~600만원	92	15.8	74	13.9
	601만 이상	182	31.2	148	27.8
	모름	4	0.7	8	1.5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284	48.6	304	57.1
	자유한국당	31	5.3	33	6.2
	바른미래당	34	5.8	26	4.9
	민주평화당	3	0.5	0	0
	정의당	37	6.3	24	4.5
	기타	10	1.7	2	0.4
	없음	164	28.1	126	23.7
	모름	21	3.6	17	3.2

4. 분석방법

- 본 연구는 후보자토론회의 제도, 인식,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두 번의 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은 설문조사 결과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후보자토론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교차분석은 두 문항 간의 상세한 분포를 통해 어떠한 요인이 주요 변인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된다.
-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후보자토론회 효과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여러 주요 변인들에 대해 회귀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후보자 선택,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후보자의 토론에 대한 평가,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정치적 효능감 등의 종속변수에 대한 후보자토론회 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 및 심리·인지적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분석한다. 종속 변수의 선택지가 세 개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선택지가 두 개인 경우는 필요에 따라 프로빗(probit) 분석, 순서형로짓(ordered logit) 분석 또는 순서형프로빗(ordered probit)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분석을 통하여 후보자토론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에서는 서울은 박원순 후보 대비 유권자들이 각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한 후보자토론회의 영향을, 경기는 이재명 후보 대비 각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한 후보자 토론회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IV.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1. 시·도지사, 교육감 및 구·시·군의장 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 및 구·시·군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된 후보자토론회는 총 358회로 2014년의 353회와 비슷한 횟수를 보였다. 이 중 시·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가 23회, 시·도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21회,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30회, 그리고 구·시·군의장 선거 후보자토론회가 284회 개최되었다.
- 23회의 시·도지사선거 후보자토론회 중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로 이루어지는 공직선거법상의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각 시·도별 1회씩 총 17회 개최되었다.
-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주관 시·도지사 후보자토론회가 모두 밤 11시 이후에 약 90분~100분 정도 방영되어 유권자들의 접근성이 다소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별로 1회씩의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된 교육감 선거 역시 시·도지사 후보자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밤 11시 이후나 시청률이 낮은 평일 오전 또는 낮 시간대에 대부분 개최되었다.
- 구·시·군의장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총 284회 개최되었으며, 지역별로 지역케이블 TV가 중계를 한 곳이 많았다. 이렇게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된 결과 유권자들의 접근성이 공중파 채널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대부분 오후 8시~11시 사이의 황금시간대에 방영되는 이점이 있었다.

2. 서울시장 선거 및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토론회 현황

-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서울시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와 경기도선거 방송토론회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토론회 1회씩, 그리고 KBS 초청 후보자토론회 1회씩 각각 총 2회씩의 후보자토론회가 열렸다.
-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서울시장 선거 및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토론회 현황

시도	주관	진행방식	사회자	방송일시
서울	서울특별시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③사회자공통질문 ④상호정책검증토론 ⑤몇음말 ⑥글로징	김진수 (KBS 해설국장)	6. 7.(목) 23:15~0:55
	KBS	①오프닝 ②후보자인사말 ③사회자공통질문 ④상호정책검증토론 ⑤시민의 질문(영상) ⑥키워드로 후보 알기(나에게 ~란) ⑦시간총량제 자유토론 ⑧몇음말 ⑨글로징	엄경철 (KBS 주간)	5.30.(수) 22:00~24:00
경기	경기도선거 방송토론회위원회	①오프닝 ②기조연설 발언 ③상호정책검증토론 ④사회자공통질문 ⑤주도권 토론 ⑥몇음말 ⑦글로징	윤도한 (MBC 논설위원)	6. 5.(화) 23:15~0:55
	KBS	①오프닝 ②후보자인사말 ③사회자공통질문 ④상호정책검증토론 ⑤시민의 질문(영상) ⑥키워드로 후보 알기(나에게 ~란) ⑦시간총량제 자유토론 ⑧몇음말 ⑨글로징	엄경철 (KBS 주간)	5.29.(화) 22:00~24:00

-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일 직전에 실시되었으며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낮은 밤 늦은 시간에 약 100분간 진행되었다. 반면 방송사가 5월 말에 자체적으로 주관한 후보자토론회는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방영되었다.
-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와 방송사 후보자토론회 모두 다양한 토론행방식을 활용하여 후보자를 다각도로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둘 모두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개별 후보자의 답변 방식은 최소화한 반면, 후보자 서로 간 토론을 통해 정체를 검증하는 상호정책검증토론과 후보자가 정해진 시간 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자유토론, 그리고 한 후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이 전개되었다.

-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와 방송사 주관 후보자토론회에서 모두 활용된 상호정책검증토론은 각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발표한 뒤에 상대후보자들과 1 대 1로 검증하는 방식으로서 그 논제가 정책공약에 한정되어 있어 토론 과정에서 정책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서 답변과 반론 및 재반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V.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 선거의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1. 제도적 측면

-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선거에 대한 관심과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선거 관심도와 후보자토론회 관심도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 모두 선거관심도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1)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 사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9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후보자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공직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토론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 후보자토론회의 횟수는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정치정보의 확득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횟수의 토론회는 공직 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정책개발 시간까지 박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횟수는 토론회의 성패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사전조사에서는 후보자토론회 횟수가 충분하다는 응답(서울 67.1%, 경기 71.1%, 전체 69.1%)이 높았으나, 사후조사에서는 후보자 토론회 횟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서울 54.3%, 경기 62.6%, 전체 58.2%)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였다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후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후보자토론회의 횟수가 부족하였다고 답했다.
- 한편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의 경우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토론회 횟수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57.9%, 경기 지역의 경우 53.1%, 전체적으로 55.6%의 응답자들이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토론회 횟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적절한 후보자토론회 횟수에 대한 사전/사후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 지역 응답자 공히 사전조사에서는 5회, 사후조사에서는 3회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 1,116명 가운데 34.6%는 방송사 주관 후보자토론회만 시청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8.2%는 선거방송토론회 위원회 주관 토론회만 시청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35.5%는 방송사 주관 후보자토론회와 선거방송토론회 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를 모두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자토론회를 어느 매체를 통해 시청하였느냐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86.4%는 '자상파 TV(KBS, MBC, SBS 등)'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이라는 응답이 6.3%였으며,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라는 응답이 6.1%를 차지하였다.
-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37.9%는 후보자토론회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57.5%였으며,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3.0%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선거 관심도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 후보자토론회 진행 방식

-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 수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39.9%는 '여론조사 상위권 후보 위주의 토론회'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주요 정당 후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59.1%를 차지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 후보 모두 참여하는 후보자토론회를 선호하였다.
- 후보자토론회의 유형과 관련해서, 전체 응답자의 46.0%는 '일반 유권자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토론회'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유권자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후보자토론회에 유권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방식을 선호하였다. 다음으로 '후보자들끼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유권자가 23.5%, '전문가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유권자가 16.7%, '사회자와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13.8%에 그쳤다.
- 한편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 형식으로 일대일 정체검증 형식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후보자토론회에서 사회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후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0%는 '토론회에 적당히 개입하면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과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역할을 적절히 수행했다고 평가하였다. 사후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3.8%가 사회자의 '소극적 개입'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회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5.1%, '단순 진행'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7%로 사전조사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 응답자들은 후보자토론회 과정에서 유권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유권자 질문사항을 조사한 후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토론회 방청객이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에 선호한다는 응답은 28.4%, 'SNS를 통한 실시간 참여' 방식에 선호한다는 응답은 22.5%, '토론회 중간에 즉석 전화 통화' 방식에 선호한다는 응답은 11.4%(로 나타났다.

2. 유권자 인식적 측면

1)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

- 분석 결과,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를 관심 있게 시청한 1,052명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인원은 1,028명으로 조사되었는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 정도와 투표여부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율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은 연령, 직업, 그리고 지지정당으로 나타난 반면, 학력과 성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 그룹 중에서는 30대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인 연령대는 60대와 20대 순이었다. 직업에 있어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집단은 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이들이었으며, 가장 적은 관심을 보인 집단은 무직자와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 순으로 나타났다.
- 지지정당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자면, 당파 별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가장 높은 후보자토론회 관심도를 보였고 그 뒤로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파에 가까운 지지정당이 없는 경우와 기타 정당 지지자를 순으로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2) 후보자토론회의 후보자 검증과 선거정보의 유용성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한 문항을 살펴보면, 응답자 1,116명 중 589명(52.8%)가 정체 및 공약을 선택하였고, 이어서 후보자의 능력을 197명(17.7%)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선택하였다.
- 응답자들은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 가장 잘 검증되었으며 (51.4%), 그 다음으로 정체(18.4%)을 꼽았다. 그러나 검증된 영역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16.8% 이르렀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정체 및 자질 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을 평가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하였으나, 향후 지방선거 토론회 준비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 제공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 정보획득 경로로써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후보자토론회가 다른 정보매체에 비해 정보제공자로서 '유익했다'고 응답한 것은 전체 1,116명 중 732명(65.6%)이었으며, '유익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67명(32.9%)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들은 동일 조사에서 정보전달자로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을 조금 낮게 평가하기는 하였지만 다른 매체들과 비교해 후보자토론회의 상대적 유용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분석 결과는 토론회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존재하지만,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는 매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 인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유용성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다만 응답자의 자산 수준과 지지정당 변수만이 선거 정보 유용성 인식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3)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과 공정성

- 분석에 따르면, 사전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57%가 지금까지의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약 41% 정도는 흥미롭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사후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약 57%가 이번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흥미롭지 않았다는 응답은 42.8%로 나타났다. 흥미롭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3% 증가하였지만 흥미롭게 시청했다는 비율은 사전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유권자의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과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업과 지지정당 변수만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흥미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에 있어서는 조사 참가자수가 1명에 그친 농/임/어업의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기능/숙련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토론회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생산/노무직 순으로 토론회가 흥미롭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 지지정당의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로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그 뒤를 이었고, 민주평화당 지지자들이 후보자토론회가 흥미롭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 후보자토론회의 유권자들의 공정성 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 먼저, 사전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개 과거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0.5%). 반면에 그것이 지금까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였다.
- 사후조사에서도 응답자들 중 72.1%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사후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였고 이 결과는 사전조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그들이 본래 갖고 있던 기대에 견주어 본다면, 사전 기대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수준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유권자들의 사회인구학적·정치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별과 학력, 지지정당은 공정성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연령과 직업은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에 따르면,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에서는 다른 학력 그룹과 비교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들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지지정당에 따른 공정성 인식의 경우 다른 정당지지자들과 비교해 바른미래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후보자 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되었다.
- 한편, 회귀분석에 따르면, 과거의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한 사람 일수록 이번 후보자토론회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효과적 측면

1) 토론회 평가

- 후보자 검증 관련 후보자토론회 평가에서 후보자 자질 비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약 74%(서울), 69%(경기)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 약 6%(서울), 11%(경기)에 비해 더 높았다. 정체 공약 비교와 정체수행능력 비교에서도 과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 유권자들의 공약 인지도에 자기 평가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90%, 경기도민의 약 91%가 공약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약 인지도에 대한 자기 평가와 방송토론 시청 횟수나 선거방송토론회 관심 시청과의 긍정적 상관관계는 약하게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쟁점이나 정체 관련 정보 습득에 관해서는 서울시민의 약 66%, 경기도민의 약 62%가 방송토론회 시청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정보 습득에 대한 자기 평가와 방송토론회 시청 횟수나 관심 시청과의 긍정적 상관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선거 쟁점 정보 습득의 효과성과 관련한 서울시민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약 71%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경기도민들은 약 57%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선거 쟁점 정보 습득의 효과성과 방송토론회 시청 횟수나 관심 시청과의 상관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 비교에 있어, 서울시민들 중 약 52%, 경기도도민들 중 약 51%는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자질 검증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검증이 가장 약하게 이루어진 영역은 후보자의 능력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민들의 경우 약 13%, 경기도민들의 경우 약 12%만이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자의 능력이 가장 잘 검증되었다고 응답했다. 검증된 영역이 없다고 응답한 시민들도 서울시 약 12%, 경기도 약 21%이었다.
-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간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없는 듯하다. 다만, 정체 검증이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검증된 영역이 없다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방송토론회를 더 빈번하게 시청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시청한 유권자들일수록 검증된 영역이 없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2) 후보자토론회와 시민 참여 (Civic engagement)

- 선거관심도에 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약 65%, 경기도민의 약 63%가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관심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약 2%, 경기도민들 사이에서 약 5% 정도였다. 변화가 없었다는 비율은 두 지역 모두 약 32~33% 수준이었다.
- 선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평가는 방송토론을 좀 더 빈번하게, 관심 있게 시청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방송토론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대화 빈도와 관련하여, 서울시민의 약 60%, 경기도민의 약 62%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대화를 조금 했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대화하지 않았거나 전혀 대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약 22~26%로 상대적으로 낮다. 선거방송토론회를 빈번하게 시청하고 관심을 가지고 시청한 유권자들일수록 주변사람들과의 대화도 더 자주 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나 권력에 대한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투표의 중요성 인식은 방송토론회 시청 횟수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경기도민들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서울시민들 사이에서는 관심 시청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보였다. 권력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방송토론회 시청 변수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3) 후보자 평가 및 지지에 미친 영향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62%의 서울시민들과 약 60%의 경기도민들이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민들의 경우 약 33%, 경기도민들의 경우 약 24%가 지지하던 후보에 대한 호감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지지 후보가 바뀌었다는 시민들은 약 11-17% 정도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없었다는 평가는 서울시민들 중 45%, 경기도민들 중 약 51%이었다.
- 토론 평가에서는 박원순(약 52%)과 이재명(약 43%)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후보는 김문수(약 8%), 이홍우(약 6%) 후보이다. 약 20%가 넘는 설문 참여자들이 누가 더 토론을 잘했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 후보자 토론회 평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를 한 번 더 시청한 유권자들일수록 토론을 잘한 후보가 없다고 말한 집단에 비해 이재명과 남경필 후보가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약 1.76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우 후보의 경우 이 수치는 대략 4배까지 상승한다. 하지만 방송토론회 시청 횟수가 이재명 후보 대비 남경필 후보의

토론 평가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진 않았다.

- 종속 변수로 서울시민들의 후보자 선택을 상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 시청 횟수나 관심 시청 변수들은 후보자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경기도민들의 후보자 선택을 종속 변수로 한 경우, 이재명 후보 대비 남경필 후보 선택의 경우 후보자토론회를 한 번 더 시청할수록 남경필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대비 기타 후보에게 투표 할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 관심 시청 변수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분석 모두 후보자 선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종속변수를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일 경우, 박원순 후보의 호감도가 관심 시청 변수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된다. 김종민 후보의 경우 시청 횟수가 증가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였다.
- 경기도의 경우, 후보자토론회를 관심 있게 시청하였다고 응답한 경기도민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반면, 김영환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후보자토론회를 관심 있게 시청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VI. 제19대 후보자토론회 효과와의 비교

1. 제도적 측면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의 후보자토론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보면, 유권자들의 선거 관심도는 여전히 높았다. 아울러서 본 연구의 주제인 후보자토론회와 관련해서 비교해보면, 유권자들의 선거 관심도는 후보자토론회에 관한 관심도로 정확하게 반영되었다. 선거에 관한 관심도가 높은 유권자들은 공직선거과정에 주요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았다.
-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제19대 대선에서의 93.2%,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98.0%를 차지하였다. 공직선거 과정에서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과 후보자의 정체 및 공약을 홍보하는 기능과 역할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 후보자토론회 횟수에 관한 논의에서, 제19대 대선 과정에서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서울과 경기에서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자토론회의 절대적인 횟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것이다.
- 후보자토론회 시간과 관련해서는 사후조사 결과 제19대 대선과 제7회 지선 모두 후보자토론회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줄여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물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선거 모두에서 과반이 넘는 응답률을 기록했지만, 현행 후보자토론회 시간을 변경해야 한다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파악된다.
-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제19대 대선과 제7회 지선 모두 '여론조사 상위 후보 위주'보다는 '주요 정당 후보 모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2. 유권자 인식적 측면

-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결코 지난 2017년 대선과 대비해 낮다고 할 수 없었다. 특히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후조사 기준으로 지난 대선 당시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94.1%였는데,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응답자들의 선거관심도는 94.9%에 육박했다.
- 투표 의향을 묻는 사전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재확인되었다. 지난 19대 대선 사전조사에서 투표 하겠다고 응답한 조사자 비율이 97.2%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보다 높은 98.8%의 조사 참가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한편,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 관심도는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었으며, 유용성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가 타 정보매체와 비교해 유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동일 문항에 대한 2017년 대선에서의 응답자 비율인 82.7%에 비해 약 17% 포인트 감소한 65.6%를 기록했다.
-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흥미성은 지난 2017년 대선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 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 측면에서의 긍정적 평가 비율(78.4%)에 비해 다소 감소(72.1%)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효과적 측면

- 제19대 대선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 효과를 비교하면,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자의 자질, 정책공약, 정책수행능력 비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 대선, 서울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서울시와 대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기도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공약 인지도를 비교해보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들의 비율이 선거를 가리지 않고 약 1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대선에서 약 3% 정도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경기도가 약 1% 낮을 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 생점 정보 습득과 관련해서는 대선 당시 유권자들의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정보를 얻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5% 정도였던 것에 비해, 서울시민들의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은 약 71%, 경기도민들의 경우 약 57%였다.
- 정보 습득이나 후보자 비교 등 여러 측면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비율은 서울시가 약 65%, 경기도가 약 63%로 대선 당시의 약 85%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
-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 선거에 대한 대화를 '매우 많이 했다'는 응답 비율은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 지난 대선 당시 응답이 두 배 이상 더 높았다.
- 방송토론 시청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를 살펴보면,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이 대선에서 약 68% 정도인 것에 비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약 62% 정도로 나타났다.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지지 후보자에 대한 호감 증가'가 대선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지지 후보의 변화' 역시 대선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후보자토론회 이전에 조사한 유권자들의 후보자 지지가 방송 시청 후 토론회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선 분석 보고서에서도 관찰되었다. 물론 토론회 잘했다고 평가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향도 모든 선거에서 유사하게 관찰된다.
- 후보자 선택과 관련해서도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력은 대선과 지선에서 모두 선택적이었다. 지난 보고서에 따르면, 후보자토론회 시청 횟수가 문재인과 홍준표 사이의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선거에서도 시청 횟수가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력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 이재명 후보와 기타후보자 사이의 선택에서만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VII.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지난 19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시청자와 비교했을 때,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시청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대선에 비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든 지방선거 환경에서 정보와 후보자 검증의 주요 소스(source)로서 후보자토론회의 역할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지난 19대 대선의 후보자토론회에 비해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이 인지하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에 있어서도 지난 대선 후보자토론회에 비해 이번 후보자토론회의 긍정적 평가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 이러한 결과는 반드시 후보자토론회 내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차이나 후보자토론회의 방영 횟수, 토론회 방영 시간 등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대선 후보자토론회 대비 유용성이나 흥미성, 효과성의 감소 폭은 상당히 큰 편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과 흥미성,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이번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은 모두 2차례씩 진행된 후보자토론회 횟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자들은 적절한 후보자토론회 횟수를 3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4~5회로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후보자토론회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청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한 지역에서 7개의 다른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방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회 위원회가 후보자토론회의 횟수를 더 증가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언론기관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적어도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토론회는 각 지역의 언론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주관하여 개최·방영할 필요성과 책임이 공적 기관으로서의 언론기관에 있다고 하겠다.

- 또한 언론기관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후보자토론회의 방영시간을 황금시간대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방영시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 이번 후보자토론회에서도 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수가 논란이 되었다. 응답자들의 다수는 주요 정당 후보 모두 참여하는 후보자토론회를 선호하였다. 이 결과는 한국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의 효율성 및 효과성보다 공평성 관점에서 후보자토론회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거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자들도 모두 참여하는 경우, 자신의 정체를 홍보하고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폭로, 비방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어 토론회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으므로 참여 후보자 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후보자토론회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 뿐 아니라 사회적·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 이번 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끼리, 또는 후보자와 전문가만 하는 토론이 아니라 유권자와 직접적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욕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후보자토론회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적 수준이 매우 높아진 만큼 후보자토론회에서도 유권자와 후보자의 소통을 일부 시도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들은 현재 수준의 사회자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 많은 개입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특히 자유토론에서 토론이 관점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데에 사회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토론에 대한 규칙을 지키고 주제에 벗어난 토론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후보자에게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에게 노출이 되기 어려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통해 반전의 기회를 잡기 적절한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후보자 개인의 자세를 통해 토론회의 질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다.

- 따라서 후보자가 토론의 규칙에 벗어나거나 거짓 정보를 말하거나 주제에 벗어나는 경우 시청자들이 SNS나 기타 IT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개입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 또한 언론 매체도 이제는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접근을 바꾸어 정치 중심의 토론회를 유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TV로 방영되는 후보자토론회가 실험의 장으로 활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함께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토론회를 기획하여 시도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와 유권자가 후보자와 함께 하는 포럼 형식의 토론회나 자유토론회 주제가 빗겨나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 그 밖에 다양한 유권자 참여형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장단점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후보자토론회를 방송용으로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과정은 과정 그 자체로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을 통해 정체성을 지향하는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무) 08806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
TEL (02)3473-9947, 9948 FAX 0505-058-1173
E-mail debates@nec.go.kr
www.debates.go.kr
www.facebook.com/2017debates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우) 03992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83-11 한국정치학회 빌딩 4층
TEL (02)3452-9555, 4920 FAX (02)3452-9557
E-mail kpsa@kpsa.go.kr
www.kpsa.or.kr

